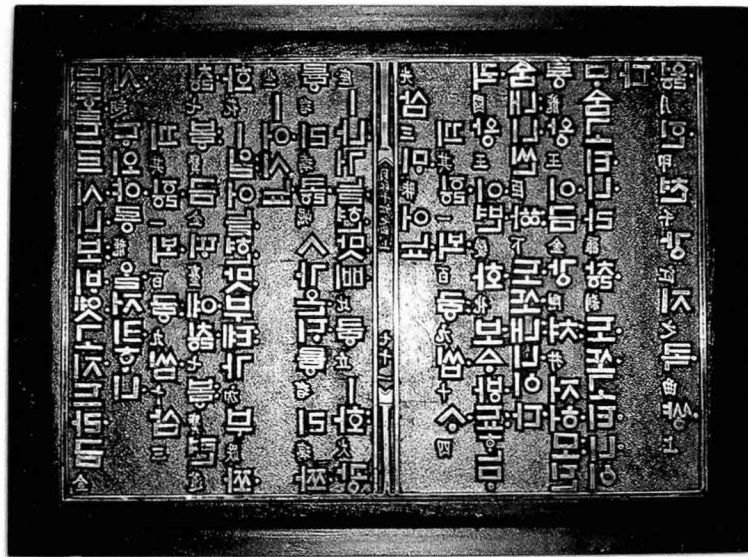


인쇄역사문화관에는 - 2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조성한 인쇄역사문화관에는 고대부터 미래인쇄까지를 총

망라한 인쇄역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지난 1천년 동안 개발되었던 다양한 활자들이 복원돼 전시되어 있다. 본보에서는 시리즈로 인쇄역사문화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월인천강지곡 동판

●조선시대 세종이 지은 악장체의 찬불가. 1446년 세종의 정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가 죽자, 그 추천(追薦)을 위하여 석가의 일대기인 《석보상절》이 수양대군(首陽大君)에 의해 지어졌는데, 세종이 이를 읽고 석가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로 지었다고 한다.

●《월인천강지곡》은 부처의 공덕을 칭송한 노래라는 뜻으로서, 석가의 생애를 소설적인 구조로 서사화 한 것이다. 즉 불교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석가의 인격과 권능을 신화적으로 미화한 전형적인 서사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현도 완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경과 서정의 묘사가 빼어나고 수사법이 다양하다. 또 음곡(音曲)으로 가창됨으로써 거기에 알맞은 운율적인 조화가 가미되어 있다. 한글로 표기된 운문으로서는 《용비어천가》와 함께 최고(最古)의 자료로서, 표기는 한글을 위주로 하고 한자를 협주(夾注)로 표기한 최초의 문헌이다.

●활자는《석보상절》과 동일한 갑인자(甲寅字)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함께 쓰인 한글 활자를 포함하여 서지학 연구에 자료가 되고 있다. 상·중·하 3권이었으나 현재 개인 소장 상권 1책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상·중권의 낙장이 《석보상절》에 끼어 전한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때 상징물로 월인천강지곡인쇄동판을 기증한 바 있다. 보물 제398호.